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접목...주민통합형 문화예술 협동조합 '나무 숲' 탄생

목포 원도심 문화꽃 핀다



지역 예술인 21명 등 39명 참여 쇠퇴한 원도심·골목상권 살리기

목포에서 도시재생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길을 찾는 주민통합형 문화예술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2012년 말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설립신고를 마친 문화예술 협동조합 '나무 숲'(이사장 김호원)은 문화예술계 각 분야에서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예술인 21명과 소비자 18명 등 3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목포의 항구성과 근대성을 가장 잘 함축하면서도 여행 목포의 예술적 모티브를 살릴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 만호동에 동지를 틀었다.

나무 숲 창작센터가 들어선 만호동 일대는 목포시가 전국 3대항 5대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1930년대 최대 변화가로, 일제 강점기 때 전국 5곳에 설치된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나무 숲 설립 목적은 자주적·자립적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복합 문화공간으로 역할 및 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매체인 '아트 가이드 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최영재 이사는 "도시재생에 문화예술을 결합시킨 협동조합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쇠퇴해 가는 원도심을 '오고 싶은 원도심'으로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미래는 문화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나무 숲'이 중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직접 조합원의 손으로 일군 거점 공간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아가 조합원들과 소비자들이 양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나무 숲은 만호동 갑자옥 모자점 거리 일대에서 협동조합 설립이후 첫 주민통합 행사인 '만사형통(만호동 사람들의 문화형성 북새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창작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 공간인 나무 숲 창작센터에서는 회화·도예 등 작가 20여명이 참여한 '개관기념전'이 열렸고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또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재생 프로그램 일환으로 '아트 클럽'도 진행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박석규의 '이발소 그림과 미술관 그림에 관한 대화', 임영주의 '다도 퍼포먼스', 박영도의 '전시 전각 및 주민 돌도장 파주기' 등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아트 마켓 '바글바글'에서는 가죽공예, 칠보공예, 육공예 등 작가의 숨결이 담긴 작품이 관객의 참여로 최종 완성되는 새로운 아트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하당 백련로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사업 본격화

'목포 의료관광 협동조합' 창립 간담회 갖고 활성화 방안 추진

지역 의료인을 중심으로 '목포 의료관광 협동조합'이 지난달 말 창립되면서 목포시 하당 백련로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병원장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신협에서 의료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남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협찬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구 전남도보건복지국장, 전남도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목포시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목포시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목포시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구 전남도보건복지국장, 전남도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목포시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목포시의료관광진흥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행사 및 국내외 설명회 등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의료관광 연계 명소화 및 공연 등 네트워크 강화, 의료관광 고객지원 구축·솔루션 개발을 통한 기반 조성, 특화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성희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이 '전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또 같은 사항을 지문하기 위한 의료관광협회 설치와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선도 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백련로 1.4km에는 병·의원 44곳이 방안에 대한 발표 등이 이어졌다.

에 이른다. '목포 의료관광협동조합'에는 백련로에서 영업 중인 병원장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백련로 의료거리 조성과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독자적인 상품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무안공항이 5일간의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3만여명의 유객(중국 관광객)가 몰려들고 있는 데다,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공항과 통합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청신호를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원회(목포기독병원장) 목포 의료관광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은 "의료관광은 새로운 융·복합 사업으로 높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조합은 작은 시작으로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관광뿐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서해권 종합 비상훈련장' 사업비 124억 국비 확보

연간 7000명 교육...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박홍률(사진) 목포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또다시 쾌거를 올려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는 13일 "목포 남향 배후부지에 들어설 '서해권 종합 비상훈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124억원(전액 국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해권 종합 비상훈련장은 남향 배후부지 1만8000㎡에 총 사업비 124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강의실과 교육장을 비롯한 소화훈련장, 구명정 하강 실습실, 긴급 대피훈련 시설 등이 들어서며 운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맡는다.

그동안 목포항은 제주도·흑산도·홍도 등을 잇는 거점 항로로, 전국 최대 연안여객선 보유와 수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부산까지 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목포에 선원 전문 거점 교육훈련장이 건



립되면 해상 안전성 강화는 물론 서해권역 선원들의 민원해소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애초 선원 교육만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분원 유치를 추진했으나 규모가 작고 유지효과가 미미해 선원교육에 안전교육을 추가한 서해권 종합 비상훈련장을 유치하게 됐다"면서 "연간 7000명에 달하는 교육원원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향 배후부지에는 총 사업비 483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 호남 생물자원원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서해권 종합 비상훈련장과 함께 호남생물자원원까지 들어서면 삼학도와 깃바위 문화권이 연결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진야시장 개장

매주 금·토요일 운영

목포 출신 명가수 남진 씨의 이름을 딴 목포 남진야시장이 개장했다.

지난 11일 열린 개장식에서는 남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초대가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남진야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집계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으로, 3호점이다.

남진야시장은 목포 자유시장내 T자 형태의 시장동로 785㎡를 활용해 매대 50개를 설치,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된다. 주도로 운영된다. 이들 가운데 50%는 청년사업가로 구성된다.

남진 야시장은 세발낙지·홍어 등 목포 5미, 닭강정 등 별미 5종의 남도음식, 다문화음식, 예술 프리마켓, 문화공연 등이 한데 어우러져 먹고, 보고, 즐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운영된다.

목포해수청, 전국항만운영 혁신대회 '최우수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신안군으로부터 넘겨받은 흑산도항 관리를 효율적 운영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해양수산부 주관 2015년 전국 항만운영 혁신대회에서 "흑

산도항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추진"이라는 과제로 항만운영 개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항만운영 개선사업은 항만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각 지방청과 항만공사(PA)에서 추진하고 있

다. 이번 대회는 1차 서면평가와 현장확인을 통해 8개 기관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사례발표과정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지역발전 위해 항만관리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차선 24시간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

- 선착순 동, 호수지정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편리한 교통편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